



제목	페르시아 문화의 동진과 조로아스터교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한국중동학회 (한국중동학회논총 30-1)
발행일	2009. 6. 30.
저자	신양섭
출판국가	대한민국
페이지수	33-73
ISBN 또는 ISSN	1225-8865

내용 요약

중앙아시아 및 중국에 조로아스터교와 그 문화를 전파한 주인공들은 이란계 민족이자 실크로드의 주인이었던 소그드 족이었다. 그들은 역사상 한 번도 거대한 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었지만 호라산에서 중국본토에 이르는 실크로드 상에 수많은 식민 도시들을 건설해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서쪽으로 로마 제국(중세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) 및 페르시아 제국과 동쪽으로는 중국을 오가며 양쪽의 특산품들을 운반했다. 하지만 소그드 상인들은 무역상이자 동시에 문화의 사절이었다.

양쪽의 세계를 오가며 중국과 로마 및 페르시아문화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. 특히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유분방한 기질은 어떤 한 종교만 고수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당시의 상황에 따라 모두 포용하게 했으며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네스토리안 기독교나 페르시아에 근원을 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를 시대에 따라 모두 수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멀리 중국까지 전파시켜 동아시아의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.